

2023년 1월 13일 공보 2023-01-13호

보도자료

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 2023년 1월 13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참고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붙임 참조)

문의처: 통화정책국 정책총괄팀 팀장 박영환, 차장 이화연

Tel: (02) 759-4461, 4066 Fax: 759-4485 E-mail: mpdept@bok.or.kr

공보관: Tel: (02) 759-4028,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상향 조정하게 된 배경

[정책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 방향 결정 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에서 3.50%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경제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물가 오름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앞으로도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p 추가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외경제 여건]

-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이 국제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에 대응한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경기 둔화가 지속되었다.

세계경제지표

	22.1/4	2/4	3/4	4/4	8월	9월	10월	11월 ⁵⁾
미국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1.6	-0.6	3.2	..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3.2	2.6	0.8	..	0.7	-0.2	1.3
	산업생산 ¹⁾ (전기비, %)	1.2	1.2	0.4	..	-0.1	0.4	-0.1
	ISM제조업 ²⁾ (기준=50)	57.8	54.8	52.2	49.2	52.8	50.9	50.2 [49.0]
	실업률 ¹⁾ (%)	3.8	3.6	3.5	3.6	3.7	3.5	3.7 [3.6]
	비농기취업자수증감 ¹⁾ (전기비 만명)	172.0	122.6	114.5	78.5	29.2	26.9	26.3 [25.6]
유로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2.5	3.2	1.3	..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0.3	-0.5	-0.5	..	0.0	0.8	-1.5
	산업생산 ¹⁾ (전기비, %)	0.8	0.2	0.4	..	1.6	0.8	-2.0
	제조업PMI ²⁾ (기준=50)	57.8	54.1	49.3	47.1	49.6	48.4	46.4 [47.1]
	실업률 ¹⁾ (%)	6.8	6.7	6.7	..	6.7	6.6	6.5
	수출 ¹⁾ (전기비, %)	6.3	5.8	2.6	..	3.9	1.5	-0.4 ..
일본	GDP성장률 ¹⁾ (전기비연율, %)	-1.8	4.5	-0.8	..	-	-	-
	소매판매 ¹⁾ (전기비, %)	-0.9	1.8	1.4	..	1.3	1.5	0.3
	산업생산 ¹⁾ (전기비, %)	0.8	-2.7	5.8	..	3.4	-1.7	-3.2
	제조업PMI ²⁾ (기준=50)	54.1	53.2	51.5	49.5	51.5	50.8	50.7 [49.0]
	수출 ¹⁾ (전기비, %)	3.7	6.6	6.7	..	-0.7	3.4	2.2
	GDP성장률(전년동기비, %)	4.8	0.4	3.9	..	-	-	-
중국	소매판매(전년동기비, %)	3.3	-4.6	3.5	..	5.4	2.5	-0.5
	산업생산(전년동기비, %)	6.5	0.7	4.8	..	4.2	6.3	5.0
	제조업PMI ²⁾ (기준=50)	49.9	49.1	49.5	48.1	49.4	50.1	49.2 [48.0]
	수출(전년동기비, %)	15.5	12.4	10.3	..	7.5	5.7	-0.2
	교역량증가율 ⁴⁾ (전년동기비, %)	5.7	4.5	5.9	..	6.4	6.0	4.8 ..

주: 1) 계절조정 기준 2)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3) 역내거래 제외 4) 상품수입량 기준

5) []내는 22.12월 중

-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유럽중앙은행 등의 통화 긴축 강화 전망 등으로 미 달러화 약세가 이어졌다.
-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및 미 달러화 움직임, 방역정책 완화 이후 중국경제의 전개 상황,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금융지표

		22.8월	9월	10월	11.23일	12월	23.1.12일
전세계 MSCI ¹⁾		613.1	553.4	586.4	623.2	605.4	634.0
- 선진국		2,627.3	2,378.7	2,547.7	2,697.4	2,602.7	2,720.1
- 신흥시장국		994.1	875.8	848.2	932.3	956.4	1,018.3
VIX ¹⁾		25.9	31.6	25.9	20.4	21.7	18.8
환율 ¹⁾	달러인덱스	108.7	112.1	111.5	106.1	103.5	102.3
	신흥시장국 ²⁾	50.1	48.4	48.8	49.8	49.9	51.3
	중국 ³⁾	6.90	7.12	7.30	7.16	6.91	6.75
국채금리 ¹⁾⁴⁾ (%)	미국	3.19	3.83	4.05	3.69	3.87	3.44
	독일	1.54	2.11	2.14	1.93	2.57	2.16
CDS프리미엄 ¹⁾ (bp)	브라질	263.9	312.3	277.0	262.3	254.2	242.7
	인도네시아	119.4	159.5	140.9	104.3	103.6	88.8
	한국	32.3	57.5	70.4	51.5	54.9	44.9
유가 ¹⁾⁵⁾ (달러/배럴)	WTI	89.6	79.5	86.5	77.8	80.3	78.4
	Brent	95.7	86.2	93.3	83.6	85.0	83.0
신흥국 글로벌펀드자금 유입 (월중, 억달러)		-2.3	-89.2	-60.6	21.5 ⁶⁾	28.5	38.9 ⁷⁾

주: 1) 기말 기준 2) JPMorgan 신흥국지수 기준

4) 10년물 기준 5) 현물 기준

7) 22.12.29~23.1.11일 기준

3) 미 달러화 대비

6) 10.27~11.23일 기준

[실물경기]

□ 국내경제는 수출이 큰 폭 감소하고 소비의 회복 흐름이 약화되는 등 성장세 둔화가 지속되었다. 고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지만 경기 둔화로 취업자수 증가폭 축소가 이어졌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 둔화,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약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이 지난 11월 전망치(1.7%)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성장 전망에는 중국경제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둔화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실물경제지표

(%, p, 만명)

	2021	2022	22.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GDP 성장률 ¹⁾	4.1	..	0.6	0.7	0.3	..	-	-	-
(민간소비)	3.7	..	-0.5	2.9	1.7	..	-	-	-
(설비투자)	9.0	..	-3.9	0.5	7.9	..	-	-	-
(건설투자)	-1.6	..	-3.9	0.2	-0.2	..	-	-	-
소매판매액지수 ²⁾	5.9	..	-1.1	-1.1	1.2	..	-0.2	-1.8	..
설비투자지수 ²⁾	9.6	..	0.2	-1.2	9.8	..	0.4	1.0	..
건설기성액 ²⁾	-6.7	..	-1.9	1.4	0.4	..	4.6	1.4	..
수출(통관) ³⁾	25.7	6.1	18.4	13.0	5.8	-9.9	-5.8	-14.0	-9.5
- 일평균 ³⁾	(25.7)	(6.3)	(20.3)	(13.8)	(5.0)	(-10.5)	(-8.0)	(-14.0)	(-9.5)
제조업생산지수 ²⁾	7.6	..	3.9	-1.7	-1.8	..	-3.5	0.5	..
서비스업생산지수 ²⁾	4.4	..	0.0	2.8	1.5	..	-1.1	-0.6	..
소비자심리지수 ⁴⁾	103.1	95.4	103.6	100.9	88.7	88.4	88.8	86.5	89.9
기업경기실사지수 ⁴⁾⁵⁾	92	81	88	85	78	72	72	74	71
취업자수 증감 ³⁾⁴⁾	36.9	81.6	100.1	88.0	78.0	60.4	67.7	62.6	50.9
고용률(원계열)	60.5	62.1	60.5	62.7	62.8	62.3	62.7	62.7	61.3
실업률(원계열)	3.7	2.9	3.5	3.0	2.5	2.6	2.4	2.3	3.0

주: 1) 계절조정, 전기비 2) 계절조정, 전기비,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기준
 3) 전년동기비 4) 연·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5) 제조업 업황실적 BSI 기준

[물 가]

□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가공식품 가격 상승 폭 확대, 전기·가스 요금 인상 영향 등으로 12월에도 5.0%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다. 균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4%대 초반에서 소폭 하락하였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대 후반으로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2월중 5% 내외를 나타내다가 기저효과, 수요압력 약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겠으며, 연간 상승률은 11월 전망치(3.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물가상승률

(전년동기비, %)

	22.1/4	2/4	3/4	4/4	10월	11월	12월
소비자물가 ¹⁾	3.8 (1.5)	5.4 (2.1)	5.9 (1.1)	5.3 (0.4)	5.7 (0.3)	5.0 (-0.1)	5.0 (0.2)
▪ 농축수산물	2.7	3.6	6.8	1.9	5.2	0.3	0.3
▪ 공업제품	5.4	8.5	7.5	6.1	6.3	5.9	6.1
(석유류)	22.5	36.3	23.7	7.6	10.7	5.6	6.8
(석유류 제외)	3.1	4.5	5.1	5.9	5.6	6.0	6.0
▪ 전기·수도·가스	2.9	8.7	15.3	23.1	23.1	23.1	23.2
▪ 서비스	3.0	3.5	4.1	4.1	4.2	4.1	4.0
(공공서비스)	0.8	0.7	0.7	0.8	0.8	0.8	0.8
(개인서비스)	4.2	5.1	6.1	6.2	6.4	6.2	6.0
균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에너지 제외 (관리물가 ²⁾ 제외)	2.8 3.3	3.5 4.1	4.0 4.8	4.2 4.9	4.2 5.0	4.3 5.1	4.1 4.8
▪ 농산물·석유류 제외	3.2	4.0	4.5	4.8	4.8	4.8	4.8
기대인플레이션율 ³⁾	2.7	3.4	4.4	4.1	4.3	4.2	3.8

주: 1) ()내는 전기비

2) 시장에서의 수요·공급보다는 정부의 직·간접적 영향을 크게 받는 가격으로, 공공서비스, 전기·수도·가스, 담배, 급식 등의 가격을 포함

3)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일반인 기준), 분기수치는 기간중 월평균

[금융안정]

-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시장안정화 대책,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 등으로 불안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고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스프레드가 축소되었으며, 원/달러 환율이 큰 폭 하락하였다. 다만 비우량 채권,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담보부 기업어음(PF-ABCP) 등에 대해서는 높은 신용 경계감이 유지되고 있다.

국내금융지표

	22.8월	9월	10월	11.23일	12월	23.1.12일
국고채금리 ¹⁾²⁾ (3년물, %)	3.69	4.19	4.19	3.85	3.72	3.47
국고채금리 ¹⁾²⁾ (10년물, %)	3.72	4.10	4.24	3.77	3.73	3.41
통안증권금리 ¹⁾²⁾ (91일물, %)	2.65	2.81	3.26	3.37	3.55	3.42
CP금리 ¹⁾²⁾ (91일물, %)	3.09	3.30	4.68	5.47	5.28	4.93
회사채금리 ¹⁾³⁾ (3년, AA-, %)	4.66	5.28	5.58	5.54	5.23	4.73
(3년, BBB-, %)	10.52	11.13	11.42	11.38	11.17	10.80
KOSPI ¹⁾	2,472	2,155	2,294	2,418	2,236	2,365
원/달러 환율 ¹⁾	1,338	1,430	1,424	1,352	1,265	1,246
원/100엔 환율 ¹⁾	966	990	964	956	946	942
외국인 주식순매수(조원)	4.0	-2.5	3.1	2.5 ⁴⁾	-1.7	2.2 ⁵⁾
주: 1) 기말기준 4) 11.1~23일중	2)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5) 23.1.2~12일중	3) 민간신용평가기관 4사 평균 기준				

- 가계대출은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가계·기업대출 및 주택가격

	22.1/4	2/4	3/4	4/4	9월	10월	11월	12월
은행 기업대출 증감(조원)	28.2	31.3	30.3	14.9	9.4	13.7	10.5	-9.4
▪ 대기업	5.7	9.3	12.9	9.7	4.7	9.3	6.5	-6.1
▪ 중소기업	22.5	22.0	17.3	5.2	4.7	4.4	4.0	-3.3
은행 가계대출 증감 ¹⁾ (조원)	-1.7	1.8	-1.3	-1.4	-1.3	-0.7	-1.0	0.3
▪ 주택담보대출 ¹⁾	6.0	4.3	4.5	5.3	0.9	1.3	1.0	3.1
▪ 기타대출 ²⁾	-7.7	-2.6	-5.7	-6.8	-2.1	-1.9	-2.1	-2.8
주택 매매가격 ^{3)(%)}	0.1	0.1	-0.8	..	-0.5	-0.8	-1.4	..
▪ 수도권 ³⁾⁽⁴⁾	-0.0	-0.1	-1.2	..	-0.6	-1.0	-1.8	..
(서울) ³⁾	-0.0	0.1	-0.8	..	-0.5	-0.8	-1.3	..
▪ 지방 ³⁾⁽⁵⁾	0.3	0.2	-0.5	..	-0.3	-0.5	-1.0	..

-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전세자금대출, 이주비·중도금대출 등 주택담보로 취급되지 않은 주택관련대출 포함
 2) 일반신용대출,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대출), 상업용부동산(상가·오피스텔 등) 담보대출, 기타대출(예·적금담보대출, 주식담보대출 등) 등으로 구성
 3) 전기비, 분기는 전기말월대비, 한국부동산원 지수 기준
 4) 서울, 인천, 경기
 5) 수도권 제외

[향후 정책 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물가가 목표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긴축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성장의 하방위험과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그간의 금리인상 과급효과,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해 나갈 것이다.